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제244호 2023.5.26 (금)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398-3620~2 / 팩스398-3630 / 발행인 김현태·편집인 고병준.전명훈

'두근두근' 설레는 삶 위해 최선…제33대 노조 출범

김현태 위원장 "조합원 전원 만나 의견 경청, 발로 뛰는 노조 되겠다"

사내 갈등 심화, 근로조건의 악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안팎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연합뉴스 새 노조집행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4월28일 연합뉴스 본사 17층 연우홀에서 제33대 노조집행부 출범식이 열렸다.

김현태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연합뉴스는 모두가 위기라고 하지만 누구도 소통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임기 중 모든 조합원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합뉴스가 위기라고, 연합뉴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런데 모두가 걱정만 할 뿐이다. 위기를 벗어나려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연합뉴스에는 서로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하는 불통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인 근로조건의 악화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내 통합을 해치는 여러 문제와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협하는 안팎의 다양한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노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조합원 전원을 직접 찾아 뵙고 얘기를 듣겠다. 빠짐없이 얘기를 들은 뒤 그 뜻을 모아 경영진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경영진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투쟁이 필요하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이 달라도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은 격론을 즐기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하면서도 "싸움은 피해야겠지만, 싸워야 한다면 물러서지 않겠다.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경영진과 날을 세우고 모든 위험과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를 아는 많은 분이 제게 말한다. 저의 특기가 싸가지 없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잘한다고 한다. 노조원을 위해서라면 그 누가 됐든 저의 특기를 마음껏 펼치겠다"며 굴하지 않는 자세로 노사문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이 "두근두근 가슴 설레던 날들, 정신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해 질 녘이면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던 날들,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도 연합이라는 자부심이면 충분하던 날들, 다시 그런 날들을 연합의 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2대 노조 집행부를 이끈 노재현 전임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어려운 때일수록 노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느꼈다. 연합뉴스가 공영언론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새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다시 웃게 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강하고 듬직한 노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5년 전 30대 노조 출범식 이후 처음으로 17층 연우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언론노조 집행부와 연합뉴스 경영진도 참석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노동조합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지적하며 신임 위원장에게 "정중하지만 싸가지 없는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겨눌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서 새 집행부와 경영진이 "연합뉴스에 주어진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주길 당부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새 노조 출범을 축하하며 "연합뉴스를 바라보던 미디어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훨씬 더 커졌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 여건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도처에 장애물과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뛰어넘고 헤쳐가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영 책임자로서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노조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33대 노조 출범과 함께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신장에 앞장설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됐다.

김현태 위원장과 함께 양진규(출판부) 장덕종(광주 전남취재본부) 조합원이 각각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부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처장과 정책기획실장 자리에는 고병준(영문경제뉴스부)과 전명훈 조합원(국제뉴스1부)이 선임됐으며, 총무부장, 교육부장, 쟁의부장은 이재윤(그래픽뉴스팀) 김태균(일본어뉴스팀) 최재훈 조합원(경기북부취재본부)이 맡게 됐다.

조직부장, 조사부장, 복지부장, 홍보부장에는 김은정(영문뉴스부) 권영전(콘텐츠인큐베이팅팀) 배영경(경제부) 이은정 조합원(연합뉴스TV 파견)이 선임됐으며 성평등부장과 지방부장은 채새롬(경제부) 박영서 조합원(강원취재본부)이 맡는다.

"제 이름은 Xavier, 연합 노조 '1호' 외국인 대의원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자비에(Xavier), 성은 발데루(Baldeyrou)입니다. 2009년부터 연합뉴스 프랑스어 뉴스팀에서 일을 해왔고 2014년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새 집행부 출범에 앞서 기쁜 마음으로 편집국 다국어뉴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맡게 된 최초의 외국인 조합원이라는 영예도 안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역할을 맡게 해준 동료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목적이 조합원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와 같이 큰 조직에서 개인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파업할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 그리고 국가에서 권력(pouvoir)이라는 정체는 그에 맞서는 대항권력(contre-pouvoir)이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이 대항권력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연합뉴스의 지속가능성과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대의원이라는 나름의 모험을 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사 이후 지난 세월 동안 노동조합이 수행한 여러 역할과 성과를 통해 저 또한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일 같이 일을 하는 부서를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의원으로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저를 포함한 다국어뉴스 외국인, 한국인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다국어 조합원들이 지켜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은 우리 부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인 (부장 직급에 이르지 못한 사원에 대한) 차등적 임금피크제 폐지 문제일 것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저와 같은 외국인 동료의 존재 이유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도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그들이 평소 지내왔던 환경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노동조합과 경영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과 공정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인력들이 그들의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서로 존중할만한 중간 지대를 지켜나갈 때 서로 진보를 이루어 나갈 발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균형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라는 모험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할은 회사와 그 임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생명선과도 같다는 점입니다.

'발로 뛰는' 33대 노조, 지역본부 순회 통해 조합원 의견 수렴

33대 노조가 출범과 함께 지역본부 순회를 시작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10일 울산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17일, 24일, 25일에는 각각 강원본부, 경남본부, 전북본부를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합원들은 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가중되는 업무부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으며, 최근에 주니어급 사원들의 잇따른 퇴사에 대한 우려와 사내 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본사와 지역본부간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임기중 13개 지역본부 모두를 한 번 이상 방문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현태 지부장이 이끄는 제33대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지방취재본부 순회 방문을 시작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경남취재본부, 강원취재본부, 전북취재본부, 울산취재본부 방문한 노조 집행부.

"연합 출근은 공포였다"며 떠나는 인재들…현실화하는 '연합 엑소더스'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왜 회사엔 항상 사람이 부족할까. 인재들의 연쇄 퇴사로 편집국이 밑 빠진 독이라서다. 최근 회사를 떠난 동료들, 특히 주니어급 퇴사자들은 연합뉴스에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 출신의 타 언론사 기자는 연합뉴스 시절을 회상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큰 공포였다"고 토로했다. 고질적인 사내 문화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작년 초부터 5월 말 현재까지 회사의 인사발령을 살펴보면 차장급 미만 퇴사자가 22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5월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기자직만 8명이 회사를 떠났다. 퇴사자 중에는 공채 • 경력 구분도 없었다. 연합에 자기 미래를 의지하기 어렵다고 결단을 내린 동료가 거의 한 달에 2명에 달한 셈이다.

퇴사자 면면을 보면 회사의 허리를 책임질 10년차 이상 기자들도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회사는 퇴사자 수 자체가 이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무엇보다 주니어 기사들의 퇴사 러시가 가장 우려스럽다. 아무리 Z세대에게 '평생직장'이란 없다 해도 올해 퇴사자 가운데 2019년 이후 입사한 5년차 이하 주니어는 5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연말까지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퇴사자 수가 20명을 넘게 된다. 자기 몫 이상을 척척 해내던 인재들이 떠난 자리에서 신입사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편집국에 인력 부족 상태가 만연한 이유다.

연합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퇴사자들은 말한다. 한 퇴사자는 휴 • 복직을 반복하다 퇴사 후에야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퇴사자는 사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부서 선배 기자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성한 소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퇴사자는 "회사에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연합에 남을 여유가 없었다. 당장 떠나야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런 사건 때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연합에 남은 동료들은 당시 사측 조사가 무성의했고, 그 결과도 당연히 솜방망이였다고 했다. 한 주니어 기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온정주의가 발동하고 자정작용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연합에서) 그런 사고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도 퇴사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연합의 최대 병폐다. 업무 탓에 질병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 갈 시간도 내지 못해 지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퇴사자는 통화에서 '신체적 건강 훼손'을 첫 번째 퇴사 사유로 꼽기도 했다.

미래 비전을 찾기 어려운 단순 업무도 젊은 기자들의 '퇴사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보도자료의 홍수 속에서 독보적 저널리즘을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때 퇴사를 고민했다는 한 주니어 기자는 "타사는 기자 1명에게 한 달 넘도록 기획 취재 기회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단신 위주에 막혀 사실상 자유도가 없다"며 "입사 초기에는 각자 저널리스트의 꿈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통신기자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적응할 만하면 자리가 바뀌는 인사 관리도 문제라는 평가가 많다. 회사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서 기자 개개인이 축적한 인적자원이 모두 사라지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기자는 인사 때마다 겪은 좌절을 토로하면서 "내가 워딩 기계일 뿐인가"라고 회사를 비판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처우도 문제다. 연합은 최근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임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일부 주니어 기자들은 입사 후 한 번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감당하며 월급이 깎이기만 하는 회사를 더 다녀 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달의 참글상

첫 '인턴' 참글상 수상자 탄생

인턴기자가 처음으로 '참글상'을 수상했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제316회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 수상작으로 팩트체크&이슈부 이상서 조합원·이건희 인턴기자의 '예술 이주민 리포트' 기획기사를 선정했다.

인턴기자가 참여한 기사가 참글상 후보작으로 올라온 사례는 적지 않았으나, 실제 수상은 처음이다. 언론계 지망생인 이 인턴기자는 이번 수상작의 기획부터 취재원 섭외, 인터뷰 등등 기자 한 명 몫을 톡톡히 해냈다고 한다.

이 인턴기자는 노보에 "취재 과정에 배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도 소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언론사 입사에 도전하면서 참글상 수상 경력을 활용하겠다"며 웃었다.

317회 참글상 장려상 수상작은 인천취재본부 홍현기 조합원의 '김포골드라인 사태 연속보도'였다. 홍현기 조합원은 이 보도를 통해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사태 문제 해결을 주도했다.

참글상은 노조 공보위와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다.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노조 사무실에서 이건희 인턴기자(왼쪽)와 이상서 조합원이 상금과 상패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알림〉

노조 홈페이지에 '절대보안 익명제보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는 제보용 게시판입니다. 제보자가 누군지는 노조도 알 수 없고, 제보 내용은 노조 전임자 3명, 그리고 제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익명 게시판은 근거 없는 상호 비방 탓에 제 기능을 잃었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익명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 실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철저한 익명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절대보안 익명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